



기초종목 한국新 품성

육상·수영서 ‘붐물’ 기록체전으로 격상

10년만에 두자릿 수 한국新 경신

남도의 풍성한 가을걷이에 맞춰 펼쳐지고 있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육상·수영 등 기초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이 쏟아져 대회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덕현

향관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기록을 탄생시켰다.

지난 1987년 김원진이 수립한 8m3의 기존 기록은 이후 8m 이상을 넘는 선수가 2명밖에 나오지 않는 등 깨지지 않는 ‘마의 벽’으로 여겨졌으나 김덕현은 이를 10cm나 훌쩍 넘어버렸다.

수영에서는 배영 200m에서 김지현(19·대구체육회)이 1분59초73의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며 지난 1994년 이상준이 세운 2분00초02의 기존 기록을 14년만에 0.29초 앞당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선우

오늘 두산 VS 삼성 PO 1차전

“기선제압 첫승 내가 책임진다”

두산 김선우·삼성 배영수 선발



배영수

‘가을 사나이’ 김선우(31·두산)와 배영수(27·삼성)가 16일 열리는 2008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맞붙는다.

두산 김경문 감독과 삼성 선동열 감독은 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미더어데이 기자회견에서 김선우와 배영수를 1차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11년간의 미국 프로야구 생활을 접고 올 시즌 두산 유니폼을 입은 김선우는 기대와 달리 21경기에 등판해 6승 7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시즌 초반 부상과 부진으로 2군행의 수모를 겪기도 했던 김선우는 하반기 들어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3승을 챙겼다.

그러나 가을 사나이로 돌아온 김선우가 처음 맞는 ‘가을잔치’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로 한 시즌 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배영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삼성의 에이스다.

며 포스트 시즌 21경기에서 6승 3패를 거머쥐었다. 평균자책점은 2.25.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배영수는 5이닝 동안 3실점으로 롯데 마장 타선을 막아내며 팀 3연승의 기반을 쌓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선화



지은희

한국남자들 “시즌 8승 가자”

카팔루아 LPGA클래식 개막

이선화·지은희 등 정상 도전

‘하와이에서도 승전보’를 펼칠 수 있을 한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여자프로골프회는 하와이로 날아가 시즌 8승 합작을 노린다.

16일(한국시간) 밤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골프장 베이코스(파72·6천600야드)에서 개막하는 카팔루아LPGA클래식은 올 시즌 새로 생긴 6개 대회 중 하나이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 하이텍 여자프로골프 챔피언십이 열리며 미국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다수가 하와이에 가지 못하지만 올 시즌 LPGA 투어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선화(22·CJ), 지은희(21·힐라코리아) 등이 출전한다.

올 시즌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주부선수 한희원(30·힐라코리아) 등 베테랑들도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때가 됐다.

LPGA 통산 24승을 거둔 오초야는 유독 하와이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한 번도 우승이 없어 각오를 다지고 있고 올 시즌 첫 승을 하와이에서 올린 소렌스탐도 명예로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탬파베이 월드시리즈행 1승 남았다

보스턴에 13-4 승...3승 1패



월드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겼다.

탬파베이는 15일(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퀘이버파크에서 계속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선승제) 4차전 방문 경기에서 휴스턴 3방 등 당단 14

만전 플라이에서 가을의 감자로 환골탈태한 탬파베이 레이스가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겼다.



16일(목) ▲2010 남아공월드컵 남미예선(칠레 : 아르헨티나)(08 : 05·SBS스포츠), (브라질 : 콜롬비아)(10 : 40·KBS2) ▲메이저리그 NL 챔피언십 시리즈(콜로라도 : LA다저스)(08 : 10·Xports) ▲2008 월드컵 양궁 최종라운드(13 : 50·

안타를 폭발시키며 보스턴 마운드를 맹폭한 끝에 13-4로 낙승.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리그 첫 우승과 월드시리즈 진출에 바짝 다가

섰다. 반면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으로 탬파베이보다 연봉 총액에서 3배나 많은 보스턴은 홈에서 열린 3, 4차전에서 홈런을 무려 7방이나 얻어맞고 연속 패배, 버려질 뻔했다.

ALCS 5차전은 17일 오전 9시 퀘이버파크에서 제임스 실즈(탬파베이)-마스타자(보스턴)의 선발 대결로 열린다.

- MBC) ▲전국체육대회(14 : 10·KBS1) ▲여자 프로농구(신한은행 : 우리은행)(15 : 50·SBS스포츠)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두산 : 삼성)(18 : 00·SBS) 17일(금) ▲PGA 저스틴 팀파레이크 슈라이너스 호스피탈 오픈 2R(06 : 00·SBS스포츠)

Homecon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location map, and listing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agency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 agency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길부동산중개'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